

“AI 생태계 구축 등 총선공약 채택해 주세요”

광주시,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30개 사업 건의
송정역사 증축 등도 포함...사업비 7조7000억

광주시가 산업경제와 복지인권, 환경안전, 문화체육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30개 사업을 확정해 제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의 미래도약을 위한 핵심사업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위주로 7개 분야 30개 사업을 확정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7조7180억원이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노사 상생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치매 코호트 빅데이터 센터 구축 ▲미래 첨단농업실증단지 등 6개 사업이 포함됐다. 여성 아동 분야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목표로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 ▲가족 돌봄 거점 가족센터 건립 사업 등을 선정했다.
복지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 수련 시설 설립 ▲공공 실버주택 건설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 ▲5·18 거리 뮤지

엄 시스템 구축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 포함된다.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품격있는 일류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국립 광주 국악원 유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 아시아 현대미술관 유치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등을 총선 공약사업으로 확정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광주 송정역 KTX 투자선도 지구 개발과 서남권 중심 광주송정역 역사 증축, 달빛내륙철도(광

주~대구)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 등으로 구성됐다.
자치 혁신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미래 도약 기반 구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30개 사업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해 총선 공약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공약 선정과 사업 실현을 통해 광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채택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60억원 투입

농가부담률 25%→20%로 낮춰
화재·질병 등 피해 농가 경영안정

전남도는 각종 풍수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기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은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까지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로 피해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560호(4300만두)이며, 폭염-풍수해-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468호를 대상으로 213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수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266억 들여 공화동에
시-기상청 업무협약 체결



여수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된다.
여수시와 기상청은 12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이하 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관은 국내 유일의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 공간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과학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부지는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6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450㎡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과학관은 주변 부지를 담수화해 물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마치 과학관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같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콘텐츠는 태풍과 풍랑, 해일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공간과 기상과학의 이해를 높이는 오감만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래기후전시관, 해양기상

역사관, 해저자료-탐사관도 갖는다.
여수시는 연간 3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유발 효과는 376억원, 일자리 창출은 168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지역인 여수의 특성과 어울려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과학관이 국민에게 해양 기상과학 기술과 문화를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과학관 건립부지 예산 72억원을 어렵게 확보해 건립하는 만큼 해양기상 테마에 맞는 최고의 기상과학관을 만들어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사랑의 도시락’ 드시고 힘내세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한 도시락 업체에서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진에게 보낼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확진자와 의료진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매일 380개 도시락을 만들어 차량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터널 교통사고 줄이기 23곳 긴급점검

터널 내 조명 LED로 전면 교체

전남도가 관리 중인 터널 23개소 14.9km에 대해 일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했다. 터널 내 사고의 사망률이 크게 높는데다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순천에서 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2터널(전북 남원 소재)에서 사망자 5명, 중상자 43명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남도내 모든 터널은 시설의 규모에 적합한 소광-전기-통신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사망률도 일반교통사고 사망률 0.6%보다 무려 7배 높은 4%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87%)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운전자의 과속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파악, 터널 통과 시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운전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규정상 방재시설에 추가적으로 터널입구 경보시설과 겨울철 미끄럼방지용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터널 내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방지를 위해 담양 유등제 등 LED조명 미교체 터널 7개소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소요재원 27억원을 추가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공공비축 산물벼 8만t 전량 인수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t 전량을 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지난 2월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전남도는 12일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는 7월이던 산물벼 인수를 올해 3월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해 주라는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수 시기는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옮겨 군·관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2만톤 가량 부족해 쌀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태풍 피해해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쌀 소비가 위축돼 최근 쌀값이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 1월까지 80kg가 마당 19만원선을 오르내리던 쌀값이 2월 들어 18만9000원대까지 떨어져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서 소비는 다소 증가했지만 외식산업 위축으로 전체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금 상환 1년 유예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용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중이며, 관광숙박업과 펜션업을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이번 유예조치로 시설자금 상환기일이 도달한 20여 업체가 17억원의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20. 03. 06.(금) ~ 03. 19.(목)

전남지역 거주(예정)중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란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지원내용	마일리지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 061) 729-2914 복색에너지연구원 : 061) 331-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061) 362-5205

접수 방법

Click!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

행정안전부 | 전남남도 | 전남테크노파크 |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무안군 | 함평군